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인사전통문화축제의 흥을 돋우는 탈춤.



◇작년 차없는 거리 지정을 기념해 열린 '인사전통문화축제' 개막장면.



◇인사동 문화장터는 주말마다 3천여명의 외국인이 찾는 관광명소다.

"인사동에 불교가 없다

일요일마다 가족단위 10만여명 발길
외국관광객 호기심 동참 "한국을 배운다"
문화특구지정 1백만명 서명운동 '진행'
불교미술관 설치 등 "조계사 영역 확대"

일요일 낮. 서울 사대문 안 대부분의 거리들은 한산하지만 인사동만은 시끌벅적하다. 하늘을 가리는 전시회 안내 현수막들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기자기한 공예품과 고서적, 전통차, 잊혀졌던 옛날 물건들이 가득한 좌판이 펼쳐진다.

안국동 로터리에서 인사동 사거리까지의 4백60m 길을 중심으로 사이사이 연결되는 골목마다 시공을 초월한 문화상품들이 즐비하다. 골목 곳곳에서는 흥미로운 행사들도 펼쳐진다. 진흙을 이겨서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질신꼬기, 떡메치기, 손으로 수묵화 그리기 등은 외국인들까지 참여하며 즐긴다. 12일로 일요일 차없는 거리 1년을 맞은 인사동의 일요일은 전통문화와 삶의 여유를 즐기는 인파로 가득하다.

그러나 인사동을 즐기러 나오는 불자들에게는 아쉬움이 있다. 안국동 로터리에는 일주문이 세워져 있지만 막상 인사동 길에서는 불교문화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안국동 로터리 초입에 원성스님의 그림들이 상설 전시되는 '풍경'과 선혜스님이 다도등을 강의하는 '불교전통문화원'이 있을뿐이다. 이 두곳을 제외하면 인사동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는 골동품 가게에 전시된 불상이나 불화들, 좌판에 널려있는 국적 모를 염주, 풍경, 소형 불상등이 전부다. 어쩌다 전통 찻집에서 영산회상곡이나 노래하는 스님들의 찬불가요를 들을 수 있지만 인사동을 대표하는 불교문화는 없다. 12일 차없는 거리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전통문화축제에서도 장승제, 전통혼례재현 전통춤 한마당, 재즈콘서트 등이 어우러 졌지만 불교문화를 소재로한 행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계사 거리(우정국로)에 즐비한 불구점들도 문화상품보다는 불교용품 판매에 여념이 없어 인사동만큼은 불교문화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인사동을 찾았다는 한 불자의 말이다. 그는 "부처님 오신날도 다가오고 해서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함께 즐기고 싶었지만 불교문화 전용골목 하나 없는 인사동은 왠지 허전하다"고 덧붙혔다. 인사동길의 한 모퉁이에 불교만을 위한 거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많은 불자들의 바람이다. 지명에 절사(寺)자가 들어있을뿐 아니라 조계사 분위기의 확대로 포교에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인사동은 불교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거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불자들의 의견이다.

40년을 넘도록 인사동을 지켜온 '인사동 터줏대감' 이경로옹(통문관 주인)은 "인사동과 불교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인연이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불교는 사라지고 민예품과 공예품들이 인사동을 채우고 있다. 거기다 요즘은 외국물건(액세서리)이나 애완동물까지 파는 좌판도 늘어나고 있어 전통문화 거리의 체면이 깍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일요일마다 내국인 10만여명 외국인 3천여명이 찾는 인사동에 불교문화를 심을 수는 없을까. 있다. 마침 인사동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회장 이호재)가 서울시와 힘을 합해 장기적인 인사동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국적이 모호한 공예품도 인사동길에서는 자주 만날 수 있다.

보존회는 인사동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리의 특성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인사동에는 5백여 업소가 있다. 이중 화랑·고미술품점이 44%를 차지하고 있고, 표구사·화방·필방·공예점·다구점·고서점 등이 25%를, 전통찻집·음식점 등이 8%를 차지한다. 전체의 82%가 문화관련 업소인 셈이다. 이러한 거리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인사동의 '문화특구' 지정. 문화특구란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고 문화적 특성이 살아있는 도시의 특정 옥외생활공간을 문화적인 지역으로 보호 육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해 문화특구 역시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 개념처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존회가 최근 인사동의 업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자료에 따르면 30%의 업주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단란주점등 문화저해 업소의 증가가 인사동의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동 길이 정비되지 못한 점과 관광편의시설 부족, 유적지 방치, 고층건물 증가 등도 인사동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문화특구로 지정되면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보존회 측의 입장이다. 또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해 현재 3만5천여명이 서명했다.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은 골목길 활성화방안으로 압축된다. 가나아트샵 주변골목은 '공예의 거리', 학고재 옆 골목에서 사원까지는 '전통음식의 거리', 영빈가든 옆 골목에서 경인미술관 주변까지는 '전통 차의 거리',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골목은 '전통도자의 거리', 수도약국에서 경운동 큰길까지는 '고미술의 거리' 등으로 지정해 골목길을 나름의 특성을 살려 특화시킨다는 것이다. 공예, 전통음식, 전통차, 전통도자, 고미술이 5개의 특성화된 거리 모두에 불교적인 요소는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독립된 불교문화의 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동의 노력에 발맞춰 불교계 예술인들도 인사동에 상설불교전시관 등의 불교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인사동 거리 한자락에 불교문화를 보여줄만한 공간을 만들어 인사동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仁寺洞)에서 불교문화를 맛볼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준비해야 한다. 거기에는 불교예술인 뿐 아니라 종단이나 종립학교, 사찰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인사동 길에서 곰팡내나는 고서나 불상만이 아닌 현대적인 감각의 불교조각이나 회화 등도 항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기다려진다.

김지연 기자



◇인사동의 일요 문화장터. 갖가지 전통문화상품과 공예품 등이 길거리 가득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지만 불교문화상품은 거의 없다.

인사동의 역사

우리 이름 '절골'서 유래…해방이후 고서화·골동품점 즐비

뉴욕의 소호, 파리의 몽마르트언덕,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도쿄의 긴자. 세계적으로 화랑가나 문화의 거리로 널리 알려진 장소들이다.

그렇다면 서울을 대표할만한 문화의 거리는 어디일까. 서울에는 인사동(仁寺洞)이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메리의 골목(Mary's alley)이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인사동이란 이름은 원래 관인방(寬仁坊)과 사동(寺洞)을 합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동은 절골이라는 순수한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1914년 일제가 부제(府制)실시라는 구실로 우리 땅 이름에 난도질을 해 놓은 결과의 부산물이 인사동이란 지명이다.

삼청동에서 시작하여 관훈동, 인사동, 광통교로 흐르던 천변의 마을을 지칭하던 인사동 길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원각사로부터 조선시대 고관 대작들의 주거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 주체성이 배어 있는 곳이다.

이 인사동에 전통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것은 일제 감점기인 1920년~3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지금같은 고서화 골동품의 거리로 붐을 이룬 것은 해방 직후이다. 해방이 되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서와 도자기 등을 일본에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 긴급 매물로 팔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 시점으로 중간 상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통 미술품들을 모아다가 인사동 길거리에 놓고 판 것이 붐을 일으킨 동기이다.

"대학로 마로니에 나무 두그루에 그늘과 산소 시민에 보시공로 '반야대상' 1호 수여합니다"

축범반야기금대표 이두호씨



"마로니에 님이 도시생활에 지친 중생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맑은 산소를 평등하게 무차별 보시하면서 남만과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는등 은혜를 베푼 공적을 기려 '반야대상' 제1호를 수여합니다."

나무가 그를 사랑하는 한 봉사로부터 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수령 70년생의 마로니에 두 그루. 수여자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림대교수 등을 지낸 이두호씨(61 · 축범반야기금 대표).

이씨는 4일 마로니에 앞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현대인은 탐진치의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성으로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며 이웃과 자연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나와 자연은 하나(我然一體)라. 대자연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연의 고마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이 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씨가 사재 1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반야대상은 "대자연의 삼라만상이나 인공물로서 사람의 정서함양이나 이용에 크게 공헌한 사물"과 의료보건,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종로구청은 상장을 마로니에 공원에 부착하고 상금 1백만원은 마로니에 두 그루의 관리비로 쓰기로 했다.

이씨는 95년 11월 1일 광공산 제2석굴암에서 전 조계종 총정 서암스님으로부터 '축범(竺梵)'이란 법명을 받았다. 부인 김영자보살(53)은 '서역월', 딸 이세라씨(22)는 '청호월'이란 법명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불연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어머니가 김용사에서 3개월동안 공양주보살을 하며 성철스님을 모신 적이 있으며, 63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기 몇해 전까지 문경 봉암사에서 공부를 했다. 서암스님과는 92년 한림대에서 '휴거'를 주제로 한 4대종교 지도자 강연회에서 처음 친견, 은사로 모시게 되었다. 이씨는 현재 천보산 불암사 거사림회 회원으로서 매주 부부동반으로 절을 찾아 정진하고 있다.

수필가이자 시인은 그는 최근 'IMF멸곡(離苦悶樂歌)'을 발표하기도 했다.

"…'景生高麗 一見金剛' 타골의 '東方등불' / 山紫水明 錦繡江山 대자연을 명심상고/ 水分知足 安心立命 輕世濟民 청학상아/ 旭日昇天 새아침에 다시한번 정신차려/ 대화평의 복지낙원 이땅위에 세웁시다."

김재경 기자



◇첫 축범 반야대상을 수상한 대학로의 마로니에. 이 나무는 '중생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맑은 신소를 평등하게 보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를 차지했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신력으로 극락왕조의 왕환을 배송합니다.
따뜻한 햇살! 밝은 웃음! 튜울립축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전을???
에버랜드
모험과 즐거움이 있는
「에버랜드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독자 IMF 할인가격으로
아미타전 도 보시고
에버랜드 도 즐기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용력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절차에 따른 불편없이 우대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아미타전 관람요금
(단체할인 단체에 한함)

상품명	상품내용	일반개인	일반단체	아미타전 우대가격 어른	중고생	어린이
아미타	자이언트콤보+에버랜드관람	13,000	11,000	8,500	6,500	4,000
아미타1	자이언트+에버랜드관람+놀이시설 1종선택	15,000	13,000	10,000	7,000	6,000
아미타2	자이언트+에버랜드관람+놀이시설 2종선택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3	자이언트관람+에버랜드관람+식사	22,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4	자이언트+에버랜드관람+놀이시설 2종선택+식사	22,000	20,000	18,000	14,000	11,000

■ 공동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 문의·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전화 02-732-1522,737-8881 팩스 737-0617,737-0696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